



8월의 기도

1. DCEM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어, 마르지 않는 샘솟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 자연의 재해와 어려움을 인간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을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 하여 주옵소서.

3.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을 수 없고, 수고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8월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4.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영속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 하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하소서. 서로가 사랑하며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어 축복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4차원의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14:24)

모세는 4차원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지만, 모세를 따라 나온 민족들은 3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3차원의 생각을 가진 민족들을 4차원의 사고로 설득시킬 수 없어 모세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민족들은 모세의 4차원적인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족들은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마음속에서 그리기보다 그들이 버리고 나온 애굽을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돌아가길 희망했습니다.

사실 마음에서 현실적인 3차원적 사고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사모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크리스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땅에 들어갈 그날까지 3차원적인 생각을 버리고 4차원적인 사고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ugust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 보는 DCEM 2007년 해외성회

<2008 미국 하와이성회>



시애틀을 강타한 성령의 불길은 하와이에 서도 계속해서 피어 올랐다. DCEM 총재 조용기牧사는 2008년 3월 28일 미국 북서부 시애틀을 최대교회인 '크리스천 페이스센터' 새성전 헌당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후 이를 뒤인 3월 30일 하와이군도 오후에 위치한 '킹스캐더럴채플(Kings Cathedral & Chapels, 제임스 모로코 목사)'을 방문해 주일예배를 인도했다.

'킹스캐더럴채플 오후성전 헌당 주일예배'를 위해 하와이를 방문한 조용기牧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목회 동역자이자 친구인 제임스 모로코牧사를 직접 찾아가 '킹스캐더럴채플'의 헌당을 축하하며 성도들을 격려했다.

DCEM이 주관하고 '킹스캐더럴채플' 주최로 드러진 이날 주일예배는 동 교회 성도들과 인근지역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 주일예배에서 모로코牧사는 "(당시) 5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한 나의 친구이자 영적 모델이 되어준 조용기牧사를 이곳 킹스캐더럴채플에 초청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성도들에게 소개했다. 모로코牧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교파를 초월해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예배 후에는 오후를 비롯해 태평양 전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기도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단 위에 오른 조용기牧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牧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자 축복이며 감사"라고 전하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牧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항상 짊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려는 성도들이 되기를 당부하며 말씀을 마쳤다.

한편 조용기牧사를 초청하여 주일예배를 드린 제임스 모로코牧사는 1980년 5월 마우이섬에서 150여 명이 모여 예배 드리던 퍼스트하나님의성회교회를 '킹스캐더럴채플'로 새롭게 명하고 당시 8,0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켰다. '킹스캐더럴채플'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로, 여러 민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광경은 마치 모든 민족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교회이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
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
(이사야 28장 11~13절)

치료가 필요하니 우리 치료의 예수님을 받아 들
입시다.

3. 기도를 통해 이기는 삶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가 있는데, 기도에는 일상의 언어로 드리는 기
도가 있는가 하면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
게 방언을 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가복
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
든지 방언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취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
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약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때의 방
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
다. 로마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
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
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 했습
니다. 이런 방언은 하나님만이 그 의미를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
해 하나님과 비밀히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를 나눌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오래
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
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
로 찬미하리라(고전 14장15절)”고 말합니다. 자신
이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렇게 기도하면 몇 시간도 기도하고 밤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4.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
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
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
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주시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
와 함께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한복음 14장16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혼자 외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사
람은 늘 함께 있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
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의 능력에는 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
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
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는 ‘돕기
위해 옆에 와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라는 말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도움을 위해
서 항상 같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참 중요하니 한 번 따라 말씀
하십시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나와 같이 계신자.” 이 보혜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막사로 환영하십시
다.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내주
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
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
니다. 그러면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



영혼은 구원받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
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 5:21)”

여기서 ‘옛사람’이란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살인
하지 말지니라” (신 5:17),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
이라” (출 21:12)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
는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정의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교회에 그 아비의 아내 즉 서모에
게 음행을 행한자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
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자를 너희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
느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
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
이니라”(고전 5:2,4,5)

비록 회개하였더라도 영혼만 구원받고 그 육체는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자가 사형 받을 만한 살인죄를 지었으
면 다른이의 생명을 빼앗은 이상, 회개하여 영혼은 구원을 받아
도 육체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자기 역시 그
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개하고 구원받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바로 행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
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 인격의 표준을 말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성도의 인격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 노하면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몸이 병들고 지치
니 벌써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분비되어 젊어지고, 병도 낫고 좋아집니다. 화
를 내면 몸을 상하고 망칩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고 하였
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축복을 받게 되어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공회는 예수
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는 회(會)의 중
심인데, 형제가 나쁘게 한다고 욕하면 영적으로 공회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형제에게 바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사람 이전에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
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